

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납골당과 수목장은 어떤 장묘제도인가

問 근세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장묘葬墓 풍습이 많이 바뀌어 화장火葬이 날로 늘어나고 그에따라 납골당納骨堂 또는 납골묘墓 안치의 장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년들어서는 수목장樹木葬이라는 새로운 장묘법도 생겨 하나의 대안으로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묘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제도와는 어떤 발전적 관련이 있으며,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부조父祖에 대한 성효관誠孝觀과는 어떤 융화점이 있는지요? — 窮問子

答 우리나라는 사실 국토가 그리 넓지 않고 인구는 많으며, 산이 많다고 하지만 묘지로 쓸 수 있는 토지는 또한 적습니다. 묘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지리풍수설地理風水說에 따라 적지適地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옛적에도 이른바 양광지지陽光之地 같은 좋은 자리가 귀했거니와 근자에 와서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고인총상금인장지古人塚上今人葬之’란 것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무덤 위에 지금 사람을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묘터는 그 자리가 따로 있어서 세월이 지나 옛사람의 무덤이 흔적을 알 수 없게 되면 후세 사람이 언젠가 거기에 다시 무덤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묘소에는 또 뒷바람이라는 게 있어 명당明堂을 잘 찾아 묘를 쓰면 거기에서 발복發福이 되어 후손이 잘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인의 못 자리에 다른 사람이 겹쳐 묘를 쓰면 먼 것 사람의 뒷바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묘주墓主의 발복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남의 묘소 곁이나 앞뒤에 몰래 장사하는 투장偷葬이라는 행위를 하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큰 변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뿌리깊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장묘제埋葬墓制가 전에 상상할 수 없던 납골당과 수목장제로 변하고 화장을 하는 데 앞을 다투어 화장장이 모자라 아우성이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태고에 우리 한반도인은 어떻게 묻혔을까.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생겼다는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지석묘支石墓, 즉 고인돌이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니 이것이 우리 한국인 태고의 무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석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르데냐섬、이베리아반도 및 그 대안과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와 인도의 아삼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 널리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인도 아삼주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형식의 분묘를 만드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대동강 유역에서부터 예성강、임진강、금강、낙동강유역에서 경성남북도 해안 지방, 전라북도 해안 및 도서 지방, 동해안과 제주도 일대 및 강화도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고인돌은 또 남방식南方式과 북방식北方式으로 구분됩니다. 남방식은 기반석基盤式이라 하며 석관石棺 또는 옹관甕棺을 매장하고 그 위에 5,6개의 괴상석塊床石이나 소판석小板石의 개석蓋石, 즉 뚜껑돌을 꺾어 놓은 것입니다. 남방식의 특징은 묘실이 다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인데 김해의 회현리會峴里에 있는 지석묘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북방식은 탁상식卓上式이라고도 하며 장방형長方形의 판석 4,5개를 세워 지상에 석실石室을 만들고 그 위에 장방형의 대형 개석을 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석실이 묘실墓室, 즉 현실玄室과 같이 되어 지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안남도의 석천산石泉山에 있는 것과 황해도 은룰殷栗에 소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인돌로써 미루어본다면 태고적 한반도의 북방은 사람이 죽으면 지상에 석실을 만들어 안치하였고, 남방은 땅속에 매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석묘는 당시 왕궁이나 씨족장 등 고귀한 신분인의 무덤이지 일반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장사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고적 일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사하였을까. 물론 땅속에 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땅위로 석실을 만들어 안치하던 북방에서도 시신을 땅위에 노출시켜 두어 금수의 먹이가 되게 할 수는 없었을 터이니 모두 땅을 파서 매장을 했을 것입니다. 선사시대와 고대사회의 인류문화는 본디 분묘에서 싹트다고도 합니다. 분묘의 양식도 토광묘土壙墓、석관묘石棺墓、옹관묘甕棺墓、석굴묘、선돌、고인돌、피라밋 등 다양합니다. 그러한 분묘를 장식하기 위한 예술적 수법이 또한 극치를 이루었는데 가령 석굴묘의 정면 부조浮彫와 고분벽화, 석실、유구遺槨과 부장품으로 넣은 금은동제 장식품과 기구 등에서 고대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사시대의 고분문화古墳文化라는 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궁전 건축같은 요르단의 암굴묘, 일본 교토의 지토대총, 이란의 아케메네스왕조 십자형묘, 그리스 미케네의 원형왕묘, 페루 잉카의 마추피추 능묘지구, 이집트의 고왕국시대 분묘, 터키 칸리디바네 암굴묘 등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분은 평안도 용강의 고구려 쌍영총雙楹塚, 만주 집안輯安의 장군총 등이 광개토왕이나 장수왕릉으로 알려지고 있고 백제의 왕궁에는 사신四神의 벽화가 있으며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는 수많은 부장품이 나왔습니다. 가야伽倻시대의 고분은 함안咸安、성산星山、고령高靈 등지에 남아 있는데 봉분이 매우 크게 축성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고분도 경주를 중심으로 일대에 산재해 있는데 서봉총瑞鳳、금관총金冠塚 등 여러 왕릉에서 금관을 비롯해서 귀걸이、팔찌、가락지、대금구帶金具、마구馬具 및 토기 등 부장품이 나왔습니다. 신라 왕릉은 봉분이 동산만큼이나 크기도 한데 그 주변에는 호석護石을 두르고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조각하였으며 석인石人과 석수石獸를 새우고 망주望柱와 석등石燈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고분은 상층인의 경우 토장土葬에 석물을 다양하고 호화롭게 하였으며 서민의 경우는 석물이 없이 작은 봉분으로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식이었는데 풍수사상이 작용하여 명형名穴을 찾아 묘를 쓰는 경향으로 흘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묻는 구조를 무덤이라 하는데 죽은 후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시대와 민족과 문화와 계층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장법葬法이 옛날과 오늘이 다르며 동서의 민

족차, 문화차에 따라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두려워하거나 악귀가 따라붙는 것을 꺼리는 민족은 영혼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토장土葬 또는 매장인데 세계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혼을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죽은이의 혼이 나돌며 산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거의 인류에게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조父祖를 공경하고 숭배하는 자손도 그 시신을 매장하고 무덤을 만든 다음 돌보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공경하고 보본감은報本感恩하는 뜻이지만 거기에는 진혼鎮魂하는 뜻이 또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모의 혼령이라도 그 있어야 할 곳인 지하에 안녕히 깃들어 있지 않고 나와서 자식이 사는 집에 찾아와 어릿대거나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크게 불길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놓고 돌을 쌓아서 만드는 적석장積石葬도 있는데 사람이 사는 주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묘지를 만듭니다. 반대로 죽은 후에도 생시와 마찬가지로 사자를 친근한 존재로 여겨 주거 근처에 점토粘土를 발라 시신을 안치해 두거나 집의 마루밑 또는 뜰 밑에 묻기도 하고 조개껍질 따위로 패총貝塚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죽은 영혼과 교접을 가지려면 주거지 근처에 시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지금도 미개 민족 사이에서 이런 장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죽은 자에 대해 두려움 대신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장법에도 땅에 묻는 토장에서 시신을 불에 태워 재를 만드는 화장火葬, 산에 옮겨다 두거나 나무에 올려 두었다가 수분이 빠진 뒤에 땅에 묻는 풍장風葬, 바다나 강물에 빠뜨리는 수장水葬,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어 두어 사위게 하는 초분草墳 등이 있는데 시대와 민족과 문화와 계급에 따라 각기 채택한 방법이니 이는 그 민족의 신앙과도 직결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토장, 즉 매장입니다. 토장은 가장 널리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장법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유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토장은 또 시체를 직접 땅에 묻는 매장에서 관을 사용해 매장하는 것으로 향상되고 다시 신분이 높고 문화가 발전됨에 따른 변화로 웅장하고 화려한 분묘 제도로 진화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고대에 방술方術로서 풍수설風水說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이 묘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풍수란 바람을 갈무린다는 장풍藏風과 물기를 얻는다는 득수得水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 고대에서는 이런 이론을 다룬 청오경靑烏經이니 장경葬經이니 하는 책도 나와서 고전古典으로 읽히고 통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묘제도 선사시대 고인돌과 고분 이후에는 이같은 중국 묘제의 영향을 받아 그를 뒤따르게 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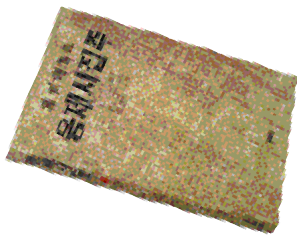
중국에서 원래 무덤은 평장平葬으로 하여 봉분封墳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자에서 묘墓를 보면 ‘구야丘也’라 해서 ‘어덕’이라 했습니다. 구丘는 사실 큰 언덕이라기보다 작게 ‘어덕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풀이를 보면 ‘구자기고언丘自其高言 묘자기평언墓自其平言 혼언지즉 왕구묘 渾言之則曰丘’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지명·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應 制 詩 集 註



權 近 原作
權 擘 集註
權 光 旭 譯註

신국판 352면 • 값 15,000원

《陽村會報》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연재한 노작의 역주문을 모아 다시 교열·수정하고,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 새롭게 조판한 원문과 인명·지명 및 사물 색인을 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 옛날 중국 황제의 명에응하여 지은 시란 뜻이며 조선 개국초에 撰表사건으로 큰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陽村이 明에서신으로 太祖 朱元璋을 전대하여 이를 해결하고 시문을 주고 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 양촌이 명 태조에게 지어 올린 24수의 시와 황제가 직접 지어 양촌에게 준 3수의 시 및 중국 문인들의 응제시와 序跋文 등이 실리고 거기에 양촌의손자 所閑堂 權擘의 방대한분량의 해석과 集註가 첨가되어 한권의 책을 이룬 것입니다.

해동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807호
전화 (02)734-3085 전송 (02)738-8935